

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시드니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 밖의 도시에 대한 서비스 확장에 대해서는 두 도시에서의 결과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또한 AOTC는 금년 4월 14일부터 정식명칭을 Australian and Overseas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에서 Telstra Corporation Ltd.로 변경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elecom Australia를, 국제적으로는 새로이 Telstra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 泰國, 地方에 150万 回線 增設

---

태국은 국내 전체의 전화망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 200만회선 증설, 지방 100만회선 증설계획이 진행중이다. 지방 100만회선 계획을 맡고 있는 TT&T사는 제 1기 공사분으로 1994년 중반까지 22만 전화회선을 가설할 예정이다. 교환기는 에릭슨·커뮤니케이션즈·타일랜드, 전송로는 알카텔·타일랜드에 발주되고 있다. TT&T의 계획에는 1995년말까지 제 2기공사에서 32만회선, 1996년말까지 제 3기공사로 26만회선, 그후 제 4기에서는 20만회선을 가설할 예정이다. TT&T사는 소유자본 중 30억 바츠에 대해 쿠른타이은행, 타이농민은행, TT&T에 대한 출자기업의 하나인 파트라·타나키트·화이넨스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다.

---

### 베트남 DGPT, 싱가포르텔레콤과 覺書締結

---

베트남 DGPT와 싱가포르텔레콤은 4월 초순 업무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자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국간의 국제회선수의 증설

현재 72회선이 있는 양국간의 회선을 우선 86회선으로(증설완료), 6개월 이내에 140회선으로 12개월 이내에 210회선을 목표로 증설해간다.

② 기존의 서비스 강화와 신규서비스의 도입

양자는 앞으로 64Kbps의 디지털 전용회선, 패킷교환 등 신규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해 간다.

③ 정보교환

전기통신정비계획이나 비지니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직원훈련

양자의 조인트에 관한 직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인도네시아, 셀룰러電話 增設 加速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이동체통신사업을 시작한 라자사는 그 주식의 50%가 수하르트대통령 일족계열의 기업에 매수되어 경영권이 이행하게 되었다. 새로이 라자사의 주식 50%를 취득한 것은 파누탄·도우타사(대통령가의 장남 후도모 소유)와 비나·루크사·프르다나사(대통령가의 후도모 소유) 2개 회사인데 주식의 구입액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라자사의 경영상태는 양호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나, 새로이 회장에 취임한 파누탄·도우타사의 홀만트에 따르면 신주주는 라자사회사에 1,500억루피아의 자금을 투입하여, 이 자금으로 원래 1991년에 예정되어 있던 15,000가입분의 용량증설을 완료하여 자사용량을 1993년 6월까지 3만으로 늘릴 예정이다.